



[2023 대학 수시 가이드]
수시모집 비율 80%
꼼꼼체크 '합격' 지름길
L4~L7

매일 아침 내 손 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짓고, 인권존중 앞장

국내 선두 플랫폼, ESG경영 선도하다



네이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전세계적 화두가 된 가운데, 네이버가 '국내 대표 ESG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후, 같은 해 12월 관련 실무팀까지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네이버는 ESG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선도적인 경영 방침을 마련,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이 과정을 투명하게 소통해 나가며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ESG 경영을 위한 노력들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2021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 인덱스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국내 기업 중 AAA를 획득한 것은 네이버가 최초다. 또, 올해 2021년 KCGS 한국 기업 지배구조 평가원이 발표하는 ESG 평가에서도 종합 A+ 등급을 획득했다. 네이버는 또 2021년 한국 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의 최초 발간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E nvironment: 카본네거티브 로드맵 착수



① LEED 플래티넘 등급을 받은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센터.
②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의 서버실 내부 모습.

제조업과 달리 인터넷 업종은 환경영향이 적지만, 네이버는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방향을 세우고 실천해가고 있다. 제2사옥 및 제2데이터센터 '각 세종' 건립을 앞두고 2021년 2월 환경 전담 조직 신설, 4월 UNGCUN 글로벌 컴팩트 가입, 8월 환경영향 국제표준 ISO14001 획득 등 환경영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지난 2020년 3분기 발표한 '2040 카본 네거티브(Carbon Negative)' 계획이 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 상쇄하겠다는 것이 해당 계획의 골자다.

네이버의 '2040 카본 네거티브'를 완성하는 대표적인 기

ESG 모든 분야서 선도적 경영방침 마련
MSCI 평가서 국내 최초 AAA등급 획득

탄소저감 기술 담은 데이터센터 '각' 오픈
친환경 가치 공유, ESG 상품 DB 확충 등
커머스 생태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 확장

차별없는 세상 위한 '인권경영' 정책 마련
투명한 지배구조 위해 우수사례 분석, 개선

술은 데이터센터 '각'의 친환경 탄소저감 기술이다. 2013년 6월 춘천에 오픈한 네이버의 첫 데이터센터 '각'은 친환경적으로 서버의 열을 내리기 위한 많은 노력과 기술을 담아 만들어졌다. 네이버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데이터센터로는 세계 최초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 중 가장 1에 가까운 1.1대의 PUE전력 효율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세종시에 건축 중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2 IDC '각 세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각 세종이 각 춘천보다 6배 더 큰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절감 효과, 탄소배출 감소효과도 아시아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커머스' 생태계 구축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은 중소상공인(SME), 물류업체, 구매자간 가치사슬이 형성돼 있는 국내 최대의 커머스 생태계로 그 파급력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친환경 관련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정보 연동 등 ESG 상품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해 소비자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SME들까지 ESG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커머스 생태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 ocial: 보안·인권·윤리 힘쓰는 네이버

네이버는 기업 윤리규범과 AI(인공지능) 윤리준칙,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정책, 컴플라이언스 조직 신설과 체계 정립, 2021년 8월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 직군별 교육훈련 체계 등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사회(S) 부문에서의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인권전담 조직과 구성원-파트너-사용자를 아우르는 선진 인권 경영체계 신설 및 도입을 준비 중이다.

특히 사회(Social) 분야는 네이버의 핵심 사업 그 자체와 연계돼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최초 'QR체크인', '클로바 케어콜' 등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기여에 적극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5년차를 맞이한 네이버의 SME 지원 방안 및 사회공헌의 대표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이다. 2014년 시작한 온라인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는 SME들의 디지털 전환을 돋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또 SME들의 자금회전까지 지원하기 위해 집화완료 다음날 판매대금 100%를 무료로 정산해주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 손흥민·김민재 나란히 '별들의 무대'

선다…목요일 UCL 1차전 / 사진 뉴시스

▲ PGA투어 데뷔 예약 김성현, 코로나

자진 신고 '기권'

▲ 단식·복식 석권 놓쳤지만 日서 맹위

떨친 여배드민턴

▲ 한국 여자핸드볼, 일본과 정기전 1차

전서 승리…남자는 패배

어 '빠른정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네이버는 2021년 12월부터는 집화완료 다음날 정산하는 것으로 기간을 더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료 정산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꽃의 일환으로 동반성장 가치 실현에 전 직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조성한 '분수펀드' 역시 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8월 말까지 약 500억원이 집행돼, 만 4년 만에 누적 금액 3200억원을 달성했다.

네이버는 또한 사업영역과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용자-파트너들에 대한 인권 존중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세부 지침으로 구성된 인권정책을 마련했다. 또 인권경영을 실행하고 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인권정책은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GPs) 등의 국제 인권 규범을 기반으로 해 수립됐으며, 구성원-이용자-파트너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준수해야 할 인권 이슈에 대한 10대 세부 지침이 명시돼 있다.

G overnance: 투명한 지배구조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

G(지배구조) 부문에서도 네이버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국내외 유수 선진 기업들의 지배구조 사례를 분석해 개선하고 있다. 이 결과, 2020년과 2021년 연달아 KCGS가 발표한 ESG 평가에서 G 부문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

네이버의 투명한 지배구조는 글로벌에 서도 낭달리 평가받고 있다. 2017년 3월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변대규 기타비상무이사가 새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글로벌 증권사 CLSA는 2021년 3월 발간한 ESG 리포트에서 네이버를 아시아 인터넷/SW 회사 중 2위로 선정했다.

네이버는 또 최수연 CEO와 김남선 CFO를 새롭게 선임했다. 글로벌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을 통해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 조직체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이사회는 또 2019년부터 투명하고 선진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이사회 성과 진단 프로젝트를 실시해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 선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파급력과 이에 따른 책임을 고려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ESG 경영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버스티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손흥민·김민재 나란히 '별들의 무대'

선다…목요일 UCL 1차전 / 사진 뉴시스

▲ PGA투어 데뷔 예약 김성현, 코로나

자진 신고 '기권'



▲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출전 위해 출국

▲ 김하성 전날 부상 탓일까, 다섯 타석

서 세차례 삼진 / 사진 뉴시스